

# 詩의 時間性 研究

— 心理的 時間을 中心으로 —

朴 沆 植

## 目 次

I. 序論	II·2. 歷史的 時間이 들어 있는 詩
II. 本論	II·3. 直觀的 時間이 들어 있는 詩
II·1.1) 物理的 時間이 들어 있는 詩	II·1.2) 詩歌의 <브리>와 物理的 時間
	III. 結論

## I. 序 論

世界에서 最初로 時間에 대해서 관심을 表明한 것은 初代 基督敎會의 가장 저명한 敎父神學者로서 西方 Latin 기독교의 代表者인 Augustinus, Aurelius (354~430)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時間을 보았었다.

천지창조와 동시에 時間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세계와 時間은 有限하며 따라서 세계와 시간은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다. 역사라는 것은 그리이스적인 回歸的인 것이거나 輪回的인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것으로서 始終이 있다.

創造以前에는 時間이 없었다. 그러므로 영원은 과거도 미래도 없는 永遠한 현재이다. 시간의 의미는 物理的인 즉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주관적

2)…東岳語文論集 第十七輯

인 것이다. 과거는 記憶이요, 미래는 待望인데 이러한 과거와 미래가 현재 속에 살아 있다고 하였다.

Augustinus의 神學思想과 哲學은 中世紀에는 Scola 哲學의 實在論(realism)에 反映되었고, 또 Francisco 舍에 直結되었으며, 近世에 와서는 Descartes의 方法的 的의를 낳게 하였다.

《懺悔錄》(Confessiones) 第11章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未來의 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누가 否定하겠는가. 그러나 未來의 것의 豫期는 이미 정신 안에 존재한다. 過去의 것이 이미 존재치 않는다는 것은 누가 否定하라. 그러나 과거의 것의 記憶은 여전히 정신 안에 존재한다. 현재가 延長을 가지지 않음을 누가 否定하라. 그것은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그러나 直觀은 계속한다. 이것을 통하여 장차 현재가 되려는 것이 과거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가 긴 것은 아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긴 미래는 미래의 긴 豫期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과거가 긴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치 않으니까. 오히려 긴 과거는 과거의 긴 記憶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현재·미래라는 객관적인 時間을 記憶·直觀·豫期라는 주관적인 意識으로 바꿔 놓고 있는데 역시 신앙이라거나 精神的인 깊이를 追究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거나 주관에 입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現在の 現在가 직관이다.”라는 것과 “과거·현재·미래가 직관을 통하여 계속되고 統一되고 운동하고 있다.”라는 말은 輻이 다르나 그 내용은 같다고 볼 수가 있다.

宋代 哲學의 大要를 말한 《近思錄》의 다음 제목들은 모두 직관에 의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과거의 학자들은 모두 고요함을 통하여 天地의 마음을 본다고 했다. 아마도 움지임의 실마리가 즉 天地의 마음임을 본랐으리라. (先儒皆以靜爲見天地之心 蓋不知隨之端乃天地之心—近思錄 通鑑類一)

마음은 하나이다. 그 실제로 말하면 고요하게 움지이지 않는 것이다. 그 작

용으로 말하면 감동해서 마침내 天下의 일에 통하는 바로 그것이다. (心一也. 有指體而冒者 寂然不動是也. 有指用而冒者 感而遂通天下之故 是也. 一同上一)

움직이는 것도 所重하지만 역시 精神世界라는 것은 動靜一如가 그 上位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德目만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到底한다고 치더라도 궁극에 가서는 獨단론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不調和의 세계에 陷入되고 말기 때문이다.

동양의 시간관 가운데 《那先比丘經》을 引用한 《詩學評傳》(p. 16~21)(宋 穰著 一潮閣刊)을 特異하기에 再引한다.

王이 다시 묻는다. ‘持續하는 時間은 무엇인가?’

那先: ‘과거사는 지속하는 시간이요 장차 닥쳐 올 일도 持續하는 시간입니다. 현재의 일은 지속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王: ‘정말로 지속하는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

那先: ‘혹은 지속하는 시간이 있고, 혹은 지속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王: ‘무엇이 持續하는 시간이 아닌가?’

那先: ‘그 道를 얻어 涅槃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지속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 道를 얻지 못하고 장차 다시 死生을 얻을 사람에게는 지속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王: ‘이러한 과거의 일, 장차 닥쳐 올 일, 그리고 현재의 일,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근본인가.’

那先: ‘과거의 일, 장차 닥쳐 올 일, 그리고 현재의 일은 愚痴(無明)가 그 근본입니다. 愚痴가 나타나면, 즉 精神이 생기고 정신은 身을 낳고 身은 名을 낳고 名은 色(物質)을 낳고 色은 六知를 생기게 합니다. 一은 眼知고, 二는 耳知고, 三은 鼻知고, 四는 口知고, 五는 身知고, 六은 心知이며, 이런 것을 六知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는 모두 밝을 향합니다. …… 즉 眼은 色을 향하고……’

최고의 次元을 無時性에 두고 있는 次元 높은 那先의 時間觀念이다. 그래서 涅槃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持續하는 時間이 없다고 바로 보았고, 分

4)…東岳 語文 叢 集 第 十 七 輯

別이라거나 差別意識으로부터 人間凡響가 시작된다는 것을 道破하고 있다.

過去事나 未來事를 지속적으로 보는 眼目은 너무나 당연하고 과거의 일, 장차 닥쳐올 일, 그리고 현재의 일의 根本을 愚痴(無日月)로 본 것은 近似하다. 보통 사람의 일의 근본은 역시 亦是 無明이요, 逆說的으로 大愚는 大聖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모든 시간이 道를 이루지 못한 無明과 愚痴라는 원천에서 흘러 나온다는 것은 한갓 妄想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批判은 精神世界에 대한 管見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時間 中에는 거룩한 시간과 속된 시간이 있다.<sup>1)</sup>

성스러운 中心으로서 공간과 똑같은 것을 우리는 時間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하고 성스러운 시간을 창조적 시간, 속된 時間을 實在的 時間이라 規定짓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 시간의 특징은 不斷한 持續이요, 不可易의 一方向的이요, 그러므로 唯一回의이라 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의 日常生活과 역사적 행위가 齣爲되는 時間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보면 모든 것이 唯心造인 것으로서 常識的(科學的) 合理性에서 儼然히 뒤집고 나면 성스러운 창조적 時間을 領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창조적 시간이란 지속이 중단되는 시간이다. 그것은 실제적 시간을 蕪無해서 原初的 時間, 天地創造의 太初의 시간, 매물지 않은 순수한 시간을 復元하는 것이어서 世俗의 시간을 씻어내는 時間이요, 洗禮의 시간이다. 따라서 현재를 영원화하는 심리적 시간이 아닐 수 없다.

前揭書에 남성적 시간과 여성적 시간을 구분하고 있는데 大略 다음과 같다. 時間은 남성적이고 공간은 여성적이다. 그러면서도 時間에 두 계기가 있는데 지속은 女性的의요 단절은 男性的의이다.

예를 들고 있는데 헬라스의 시간표상이 남성적인 까닭은 그리이스인의 思惟가 시간의 단절의 계기에 역점을 두기 때문이요, 알리안적 시간표상이 여성적인 이유는 그들의 思惟가 時間의 지속의 계기에 주목하는 때문

1) 張光熙著, 『時間과 人間의 존재』, 1980. 2. 10

이다. 따라서 그리이스인들이 단절·분할·개별에 주목한다고 하면 독일인 등을 지속·연결·내재·전체를 優位視한다고 할 것이다. 예술에 있어서도 그리이스인들이 연극에 乘한 때에 반하여 게르만인들이 음악에 乘한 까닭은 단절과 지속의 差異이리라.

사람의 思考方式에 따라서 時間은 이렇게 변혁하여 왔지만 그 大綱額을 든다면 다음 三種으로 括束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物理的 時間, 곧 自然時間(going time)이니 Issac Newton(1643~1727)의 운동법칙(Newton's method)에 의해서 결정된 정확한 것으로서 時計가 가는 그대로인 객관적 시간 개념에서 오는 것이다. 다음 둘째인 것은 Martin Heidegger(1889~)의 《存在와 時間》(Sein und Zeit)이 提示하는 역사적 시간(coming time)이요, 셋째는 Henri Bergson(1859~1941)의 심리적 시간을 직관적 시간(Being time)이 그것이다.

本論考는 詩 속에 시간이 어떻게 作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探求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그 시간의 작용이 詩에 어떠한 效果를 가져 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어 實地 詩 쓰는 데에 영향되고자 하는 것을 結果하고 싶은 것이다.

## II. 本 論

### II·1.1) 物理的 時間이 들어있는 詩

같은 物理的 시간이 들어 있는 詩라도 緩急의 차이가 있으니 緩漫한 것에서부터 Tempo가 빠른 것으로 順序를 잡아 그 題目과 作家를 記錄하기로 하겠다.

〈Rhapsody in a windy night〉(바람 부는 밤의 狂想詩) T.S.Eliot(1888~1965)

6)…東岳 語文 論集 第十七輯

〈Zeitsatze〉(되돌아 본 인생) Eugenio Montale (1896~ )

〈雅歌〉 朴木月

〈아시느브〉 Seferis(1900~1963) 1963년도 노벨문학상수상작 柳玲·李鍾  
求譯

〈충청도 아침 해〉 金准鉉(1943~ )

〈Autumn〉(가을) Thomas Ernest Hulme( ~ )

〈桃花〉(七言絶句) 車天翰(1556~1615)

〈野花上高山〉(七言絶句) 崔慶昌(1546~1590)

## II · 1.2 詩歌의 〈모리〉(洋樂의 tempo)와 物理的 時間

詩 속에서 〈모리〉가 어떻게 作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새로운 方向의 것으로서 興味の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것은 物理的 時間의 所興이겠지만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물리적 시간이 판소리 〈春香歌〉에 나타난 十種의 〈모리〉에 어떻게 比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現代詩로서 代  
入코자 하는 것이 此項의 目的이다. 그러면 우선 詩歌의 篇에서 말하는 〈모리〉라는 것과 洋樂의 tempo 와를 比較하기로 한다.<sup>2)</sup>

가장 느린 速度로부터 가장 빠른 순서로 表示하면,

- ① 잔양조(Lento): 아주 느리게, 느리고 슬픈 곡조로. (서정적)
- ② 늦은 중모리(Adagio): 느리게 (Sonata 의 느린 악장)
- ③ 중모리(Andante): 천천히 느린 속도로, 태연한 맛과 안정감을 준다.  
(서술적)
- ④ 잦은 중모리(Andantino): Andante 보다 조금 빠른 속도.
- ⑤ 중중모리(Moderato): 보통의 속도로 흥취를 들구고 우아한 맛을 준다.  
(감정이 고조되는 상태)

2) 韓玉振: 〈詩歌文學과 音樂의 관계〉, 『東坡文學』第七輯, 淑大國語國文學會刊, 1967.

- ⑥ 잣은 모리 (Allegretto): 섬세하면서 명랑하고 차분하면서 상쾌하다. 보통 속도로.
- ⑦ 휘모리 (Allegro): 적당한 왜활함을 가지고(알레그레토보다 약간 느리게).
- ⑧ 달모리 (Vvace): 快速하게 빠른 속도로.
- ⑨ 엇모리 (Presto): 생기있게 빠른 속도로.
- ⑩ 엇중모리 (Prestissimo): 빠르고 급하게.

1) 진양조(Lento): 느리고 슬픈 곡조로, 서정적,

달

王 維

그윽한 竹林 속에  
 홀로 앉아  
 거문고 뜯고  
 다시 휘파람 분다.  
 아무도 모른다.  
 이윽고 달이  
 빛을 안고 찾아온다.

竹 里 館

獨 坐 幽 篁 裏  
 彈 琴 復 長 嘯  
 深 林 人 不 知  
 明 有 來 相 照

2) 늦은 중모리(Adagio): 느리게.

三 更

서 경 주

이슬 먹음은 새빨간 동백꽃이  
 바람도 없는 어두운 밤중  
 그 버량에서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깊은 강물 위에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8)…東岳 語文 論集 第十七 輯

3) 중도리(Andante): 천천히 느린 속도로, 태연한 맛과 안정감을 준다.

가 을

을

가을밤 싸늘한 感傷  
 탁으로 나갔더니  
 얼굴이 붉은 농부같이  
 뚝스레한 말이 울타리권 넘보고 있었다.  
 나는 말을 걸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주위의 생각에 잠긴 벌들은  
 都市의 아이들처럼 얼굴이 희었었다.

4) 잣은 중도리(Andantino)

가벼운 구름

햇 세

가느다란 하이얀  
 부드럽고 가벼운 구름이  
 푸른 하늘에 은의 잡니다.  
 희고 시원한 구름이  
 그때의 푸른 꿈속을 지나가는 것은  
 시선을 떨구고  
 즐겁게 느껴세요.

5) 잣은 모리(Allegretto): 섬세하면서 명랑하고 차분하면서 상쾌하다.

다 칠

尹 鎭 鉉

우유빛 안개  
 살포시 없어 놓고  
 먼 地주 잠에서 깨다.  
 누운 地球 그림자  
 차츰 걷히면서

돌배의 山, 山이  
 스스라 깨어  
 어깨 추세우고 앞으면  
 여울물 소리내어  
 바다 향하고  
 일렁이는 바람  
 새소리 나무 위에서  
 옥빛 찬란히 클리 떨어지는데  
 포플더 하늘 쪽대기  
 기름 물결 남실남실 지나가고  
 부채살 霞金 빛  
 새 생명 온누리 넘친다.

6) 휘모리(Allegro): 적당한 쾌활함을 가지고.

연분홍

金 嶽 曙

봄바람 하늘하늘 넘도는 길에  
 연분홍 살구꽃이 눈을 틍니다.  
 연분홍 송이송이 못내 반가워  
 나비는 너울너울 춤을 춥니다.  
 봄바람 하늘하늘 넘도는 길에  
 연분홍 살구꽃이 나부칩니다.  
 연분홍 송이송이 바람에 지니  
 나비는 울머울머 돌아섭니다.

7) 엷모리(Presto): 생기 있게 빨리.

플 발

朴 哲 石

찬 이슬 풀밭 달고  
 햇빛 싱싱 풀밭 띄고  
 종다리 구름 하롱

10)…東岳 露文 論集 第十七 輯

아침 노을 솟아 날고  
草綠빛 하늘빛 쓸고  
뛰어가는 맨발 햇발

8) 엇줄모리 (Prestissimo): 빠르게, 급하게.

피 아 노

손 鳳 鏡

피아노에 얹은  
여자의 두 손에서는  
끊일없이  
열 마리씩  
스무 마리씩  
신선한 들고기가  
뛰는 빛의 꼬리를 돌고  
쏟아진다.

나는 바다로 가서  
가장 신나게 서퍼런  
파도의 끝날 하나를  
잡어들었다.

II · 2. 歷史的 時間이 들어있는 詩

歷史的 時間이란 Martin Heidegger(1889~ )의 說에 依한 것이니 그  
것을 先驅의 決意性(Vorlaufen de Entschlossenheit)으로서 근원성과 낡은 自  
己를 벗어난 脫自性(Ekstasen)과 속마음의 外化現象인 開示性(Erschlossen  
heit)을 지닌 시간이다. 따라서 과거는 由來, 현재는 순간, 미래는 선구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sup>3)</sup>

《항일민족시집》(1973再版 민족학교편) 속에 역사적 시간이 들어있는 詩들  
이 네편 보이고 <책머리에 부치는 말> 속에 이에 사무친 글이 들어 있는

3) Martin Heidegger, Sein und Zeit, Tübingen, 1953. ○島貫仁壽, 『存在와 時間』, 三笠  
書房 金雀集譯 『時間論』 (1979).

것을 볼 수 있으니 여기에 읊기어 보기로 하겠다.

生命이 귀한 점은 죽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데 있다. 죽지 않으면 옛 생명 그대로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것은 보다 높은 새 生命이다……

《항일민족시집》 속에 들어있는 역사적 시간을 담은 詩 네 편이란 〈學事歌〉(安重根), 〈한 나라 생각〉(申秉浩), 〈당당한 대의를〉(金道和·題目이 보이지 않아서 Rabindranath Tagor 式으로 첫줄을 가져 오), 〈制勝堂所見〉(柳致環)이다.

이 외에도 〈목숨〉(申龜集), 〈나의 一念은〉(李鍾圓)이 이에 該當되며 〈巨木에게〉(柳致環)는 완전히 이에 離反되는 作品긴 하나 그러나 참고에 공하기로 하겠다.

### 學 事 歌

安 重 根

장부가 세상에 처함이어 그 뜻이 크도다.  
 매가 영웅을 지음이어 영웅이 패물 지으리로다.  
 천하를 응시함이어 어느 날에 업을 이룬고  
 동풍이 점점 참이어 만드시 목적을 이룰지로다.  
 위도적 위도적이어 어찌 목숨을 비길고  
 어찌 이에 이룰 줄을 알았으리오.  
 시세가 그렇게 하였구나.  
 동포 동포여 속히 대업을 이룰지어다.  
 만세 만세여 대한 독립이로다.  
 만세 만만세 대한 동포야.

丈夫處世兮 基志大矣  
 時造英雄兮 英雄時造  
 雄視天下兮 何日業成  
 東風漸寒兮 必成目的  
 鼠窺鼠窺兮 豈肯此命

12)…東岳 語文 論集 第十七輯

豈度知此兮 時勢固然  
 同胞同胞兮 速成大業  
 萬歲萬歲兮 大韓獨立  
 萬歲萬歲兮 大韓同胞

한 나라 생각

丹齋 申 采 浩

나는 비 사랑  
 너는 내 사랑  
 두 사랑 사이  
 칼로 썩 비면  
 고우나 고운  
 밋덩어리가  
 들들들 흔들리  
 나리 오리라  
 한 나라 땅에 골고루 뿌려서  
 떨어 지는 곳마다  
 꽃이 피어서  
 봄맞이 하리

招庵 金 道 和

당당한 벽의문  
 피고야 말것이  
 흙은 이물 막대 짚고  
 뒤를 따라 나섰으  
 한조각 붉은 마음  
 간곳마다 서로 동함을  
 살아도 죽어도  
 맹세코 도로 도우리.  
 피는 증에 고통있고  
 고통 증에 피는 것이  
 泰岳도 鴻毛도  
 다 같은 한 티끌이랴오.

밝고 밝은 이마음  
아견도 죽지 않은 것이  
天日을 돌리는 그 원인들  
어찌 될 수 없으리.

出典《獨立運動史》(義兵抗爭史)

— 독립운동사 편찬회편 —

制勝堂所見

유 치 환

나라 위한 애뜻한 丹心이었기에  
여기 후미진 섬끝  
四百年의 외로움도 寂寂히 예사로와  
술그는 아롱진 기와 끝에  
무심한 참새 서넛 앉아 깃 다듬고  
놀더라.

목 숨

신 동 집

목숨은 때 붙었나  
절박은 흙이 된 빛깔  
황폐한 얼굴엔 표정이 없다.  
나는 무한히 살고 싶더라.  
너랑 살아보고 싶더라.  
살아서 죽음보다 그리운 것이 되고 싶더라.  
億萬 光年の 玄囁을 거쳐  
나의 목숨 안에 와 닿는  
한 개의 별빛

우리는 아직도 砲煙의 遺憶속에서  
없어진 이름들을 부르고 있다.  
며뚝이 채운에 젖어진 이름들

14)…東岳 屬文 論集 第十七 卷

살은 자는 죽은 자를 誦讀하다.  
죽은 자는 살은 자를 誦讀하다.  
무술의 조건은 孤獨하다.

바라보면 멀리도 왔다마는  
나의 뒤 저 편으로  
어찌면 신명나게 바람은 불고 있다.

어느 학많은 時空이 지나  
모양없이 지워질 습자리에  
나의 由來는 살아서 돌아오라.

나의 一念은

李 鍾 國

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애인들도 마지막 그 아름다운 痛哭을 더뜨리려 조  
용히 나의 뒤를 따랐습니다. 살아야한다는 온갖 절실한 理由가 알게처럼 사라  
질 때——

나의 죽음은 나의 一念은 오히려 세물고 또 입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닌 것을——

나는 그것을 언제나 廓然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을 낙엽이 내리는 湖畔

거기 눈부신 鎊金빛 수애

나의 屍形은 소리없이 무너졌습니다.

저을 中空에 실 쫓는 우리의

황혼환 所託와

푸른 자봉과 나의 불 붙는 一念은

또한 어디에서나

해바라기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오늘은

한길을 따라가는 피릿 峯頂과

무수한 죽음을 넘어서서 무수한

죽음을 享受하며——

죽음을 넘어서는 찬란한 싸움은 이 찬란한 싸움은

또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巨木에게

유 치 환

몇 백년이나 앓을까 三百年?

—아니 四百年!

無謀한 나무여, 미련하고도 희망스런 나무여, 하늘끝 등성이 저 數數萬의 어린  
풀들의 그 가냘픈 팔아귀를 내저으며 애답게도 탄식하며, 환호하며 찢피우고  
씨뭇고 시들고 나고 시드는 그 목숨의 그지없는 哀歡의 반짝임을 아는가.

아아 진실로 목숨의 생겨남과 한가지로 죽음도 또한 거룩한 은총이거니 四百年  
의 기나긴 刻薄한 세월을 顧하게도 녹솔고 굳은 몸둥아리를 하고 하늘의 一角  
을 어두이 가리어 선채 또 하나 마련된 목숨이 至福을 놓친 아아 이 형벌의 나  
무여.

Ⅱ·3 直觀時間(心理的 時間)이 들어 있는 詩

직관시간이란 Henri Bergson(1859~1914)의 時間(Being time)을 말한다.  
非合理主義의 그의 哲學은 William James 와 Whitehead 와 Bernard Shaw  
에게 영향을 주었을 뿐 정치에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이성주의에 대한  
반발로 일어선 그의 첫 著作은 《時間과 自由意志》(Essai sur les Données Im-  
médiates de la Conscience)인데 그의 思想의 핵심이요 가장 독창성을 지닌  
認識論이다.

그의 哲學에서 知性和 本能의 區別은 근본적인 것이다. 本能은 最上의  
상태에 있을 때 直覺이라고 부른다. 시간과 공간을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  
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知性은 공간과 연관되고, 본능과 지각은 시간과  
관련된다.

Bergson 에 의하면 수학적인 時間은 실로 공간의 一種에 지나지 않는다.  
생명의 本質을 이루고 있는 시간을 그는 持續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순수  
지속은 가장 外部的인 것이 없어진 狀態이며 또 外部的인 것이 가장 적게  
侵入된 것이라고 한다.

과거와 현재는 서로 외부적인 것이 아니고 意識의 統一 속에 혼합된다.

16)…東岳齋文集 第十七卷

과거란 記憶 속에 있고 미래란 期待 속에 있을 뿐으로서 순수지속 가운데는 永遠한 현재가 있을 뿐이다. Bergson의 순수지속이 들어있는 詩, Hermann Hesse(1877~ )의 Der Dichter(시인)이다.<sup>4)</sup>

다음 직관시간을 보다 明確하게 하기 위하여 ‘직관시간의 分岐點’을 밝히고 그리고 ‘직관시간의 근본원리’를 밝히고 ‘허공이 太古 가운데서 생겼다’는 그야말로 ‘직관시간의 본거’를 提示하기 위한 분위기를 造成하기 위하여 太古國師의 行狀의 片貌를 보이겠다. 그리고 실천으로서의 菽湍法師 法界圓 偈頌과 海眼潭師의 <멋진 사람>을 붙인다.

直觀時間의 分岐點

直觀時間이라는 것은 대관절 어떤 한곳에서 分岐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新羅 九山禪門 가운데 法風이 제일 번창했던 關嶺山 梵田禪師의 이야기들 들어야 할 것 같다.

15세에 出家하여 20세에 경주(서라벌)에 가서 比丘戒를 받고 광덕왕 6年(83년)에 王子인 金泰宗과 함께 入唐하여 官齊安禪師를 찾아 갔었다.

梵田이 인사하러 들어왔을 때 齊安이 물었다.

問: 어디서 왔느냐?

答: 東國에서 왔읍니다.

問: 水路로 왔는가 아니면 陸路로 왔는가?

答: 兩路를 다 밟지 않고 왔읍니다.

問: 이미 兩路를 다 밟지 않고 왔다면 어떻게 이곳에 왔단 말인가?

答: 日月東西가 무슨 障礙가 있으리까?

이러한 問答을 나눈 齊安은 “실로 동명보살이다” 하고 칭찬했다. 정신 세계라는 것은 時空을 다질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직관인 것이다. 여기서 보면 修行의 힘은 이같이 時空을 自在로 할 수 있는 것이다.

4) H.Hesse 「隱·나의 自傳」 李仁雄譯 藝文圖書社, 1977.

생각해보면 달 가운데 가장 平凡한 次元의 말이 平常語(正說이라고나 할까?) 이어서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면 特待生이 될 것이다.” “貯蓄을 하라 그러면 富翁가 될 것이다.”라는 固定되어 그 이상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次元의 말이요, 이보다 次元이 높은 말은 역설인 바

내가 오자 마칠 서쪽으로 돌아갔으니 남은 毒氣가 끌쳐릴 쓰다.

아름다운 것은 추한 것, 추한 것은 아름다운 것 (Shakespeare의 Macbeth에 나온 것)

最高 次元의 것은 話頭(公案)이다. 바른 말로 해서 일깨워 줄 수 없는 見性의 世界를 맞은 편이 눈을 띄워주기 위해 가장 적절하게 직선적으로 알려주는 知禁로운 禪問答이 될 것이다. 論理的으로 飛躍이 심한 대상 知慧의 頓悟를 促求하는 方法이 될 것이다.

“중생세계가 감하지지 않고 제불세계가 더하지지도 않는다”(生界不滅, 佛界不增) 같은 것이 곧 그것이다.

以上과 같은 시발점으로 하여 직관시간의 좋은 예로서는 다음 이야기를 드는 것이 가장 좋은 설명이 될 것이다.

어느날 眞覺國師(慧覺)가 普照國師(知訥)를 따라가다가 지늘이 떨어진 신을 가리켜 말하되 “신은 이 가운데 있는데 사람은 어느 곳에 있는가?” (鞋在遮裏 人在什麼處)라고 말하였다. 이때 慧覺이 답하되 말하되 “어째서 그때 서로 보지 못하였나이까?”(何不其時相見)라고 하니 지늘은 크게 기뻐하였다.

여기에 비로소 직관시간의 妙를 直破한 要諦가 있다 할 것이다.

都是 직관시간이라 하는 것은 衆生世界, 器世間, 智正覺世間인 三種世間 가운데 器世間으로부터 智正覺世間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된다 할 것인 바 이 길을 통하여 眞如와 涅槃의 法의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일찍이 普照國師(知訥)가 昌平 청원사에서 머무르면서 坐禪을 하였었는데 하루는 六菴大師가 지은 《六菴壇經》을 읽다가 다음 대목에 이르러서

18)…東岳語文集 第十七輯

황홀하게 깨닫게 되었다.

眞如 自性이 생각을 일으켜 六根이 밖으로 보고 듣고 깨닫고 아나 萬像에 물들지 아니하니 眞性은 항상 스스로 있느니라 (眞如自性起念 六根 隨見隨聞知 不聚 萬像而 眞性 常自在)

萬像에 물들지 않고 항상 스스로 있는 진성의 자리는 바로 직관시간을 통한 바로 그 진리일시 分明하다.

圓妙國師(安實)가 21세 때 僧選을 마치고 어느날 普照國師로부터 다음과 같은 偈頌을 받들었다.

波風月難顯 夜深燈更光 勸君盡必器 勿傾甘露水.

(물결이 어찌러우나 달이 나타나기 어렵고 밤이 깊으니 등잔이 다시 빛난다. 그때에 제 마음 정돈하기를 권하노니 참모수와 같은 단술의 마음 기울어 지지 말라).

여기서 보면 修道하는 사람은 衆生間의 마음을 두지 말고 직관을 통하여 知正覺世間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고 있는 것이다.

直觀時間(心理的 時間)의 근본원리

이름이 높은 普照國師(知訥)의 《修心訣》의 다음 대목을 읽으면 직관시간의 근본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察得하게 되리라.

진리에 들어가는 길이 많으나 그때마다 한 門을 가리켜, 그때로 하여금 근원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때는 까마귀의 우는 소리나 까치의 우짖는 소리란 듣는가?

들리오

그대는 듣는 성을 들어켜 들어보라. 극도로 드릴 많은 소리가 있는가?

그 속에 들어가서는 어떤 소리도 어떤 본질도 얻을 수 없오

기득하다. 기득하다. 그것이 관음보살의 이치의 들어간 문이라. 나는 다시 그때에게 물으리라. 그대는 그 속에 들어가서는 어떤 소리도 어떤 본질도 얻을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미 얻을 수 없었다면 그건 왜냐하면 그것은 허공이 아닌가?

원래 공한 것이 아니라 밝고 밝아 어둠이 많소.

어떤 것이 공하지 않은 것의 본체인가?

모양이 없으므로 말로 나타낼 수 없소.

그것이 모든 부처와 조사의 명백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이미 모양 없는데 또 크고 작음이 있겠으며, 크고 작음이 없는데 또 한계가 있겠는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안팎이 없고, 안팎이 없기 때문에 멀고 가까움이 없으며 멀고 가까움이 없기 때문에 저것과 이것이 없다. 저것과 이것이 없으므로 가고 음이 없으며, 가고 음이 없으므로 나고 죽음이 없으며, 나고 죽음이 없으므로 예와 지극이 없으며, 예와 지극이 없으므로 미혹과 깨침이 없고, 미혹과 깨침이 없으므로 범부와 성인이 없으며, 凡夫와 성인이 없으므로 더럽고 깨끗함이 없고, 더럽고 깨끗함이 없으므로 옳고 그름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모든 이름과 말이 있을 수 없다. 모두가 다 없어도, 모든 감관과 대상과 일체의 망명과 나아가서는 갖가지 모양과 갖가지 이름과 말이 다 있을 수 없으니, 이것이 어찌 본래부터 비고 고요하며, 본래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 신령스런 맑이 어둠이 많아, 무정한 것과는 같지 않게 스스로 신성스러이 아나니, 이것이 바로 그대의 비고 고요하며 신령스러이 아는 청정한 마음의 본체다. 이 청정하고 비고 고요한 마음은 三반의 모든 부처의 깨끗하며 맑은 마음이며, 또한 중생의 근본의 깨닫는 성이다. 이것을 깨우쳐 지키는 이는, 眞如는 맑아 움직이지 않고 해탈할 것이요, 이것을 모르고 동지는 이는 여섯 길로 나아가 오랫동안 헤맬 것이다. (太古集 附錄 行狀, 韓隱의 思想大全集 4, pp. 213~215).

다음날 스승은 또 위의를 갖추고 나아갔다. 석우 화상은

「부처님과 조사님네들이 전한 것은 오직 한 마음이요, 판 법이 없소」

하고, 이내 마조가증을 시켜 배매의 상선사에게 들은 인연을 예로 들어,

“조그만 광명이 있으면, 그것을 진실이라 생각하는 이는 빛 속에 떨어져 사랑 분별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옛날 조사님들은 이런 사람의 병을 보고 어찌할 수 없어 청정한 경지에 관문을 만들어 놓고, 결박하라! 한 것이요. 그러나 진실로 투철한 사람에게는 그것은 다 쓸데 없는 기구인 것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혼자서 그처럼 분명하게 갈림길을 가려내었소?”

하였다. 스승은 말하였다.

부처님과 조사님네의 가르치신 방편이 구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우 화상은 말하였다.

“진실로 그렇소. 일찌기 경인을 심지 않았던들 사된 그들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

이오. 노승은 비록 이 깊은 산에 있지만 조사의 문은 열어놓고 그 아손을 기다린지 오래였오.”

스승은,

“선지식이란 의미 점을 저버리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결코 점을 떠나지 않겠습니다.”하고 모트는 사이에 배수하였다.

석유 화상은

“노승도 그때와 함께 이 고요함을 즐기고 싶소마는 다음날 갈 길이 막힐까 염려 되었오. 그러나 법은 만나기 어려운 것이니 반달란 머물면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돌아가시오. 그러나 그 道誦는 상고할 수 없는 것이니 상고할만한 것은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이오.”

하였다. 그리하여 스승이 돌아오려 할 때에 석유 화상은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평상시의 함양하는 일이며 어떤 것이 향상의 파비인가?”

스승은 병의 풀을 쓸듯 날남이 대답하고 앞으로 나아가 물었다.

“이 밤에 또 다른 도리가 있습니까?” 석유 화상은 잠깐 놀라면서 말하였다.

노승도 그럭했고 삼색의 부처님과 조사님에도 그럭했오. 장노에게 혹 다른 도리가 있다면 왜 말하지 않소?”

스승은 절하며,

“옛부터 부자간에도 전하지 않는 묘한 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가 어찌 감히 화상의 큰 은혜를 저버리겠습니까?”

하시고는 조아리고 함장하였다.

석유 화상은 하하하 크게 웃으며,

장르어, 그때의 三백 六十 대마디와 八만 四천 턴구멍이 오날 모두 연렸소. 그리하여 노승이 七十여년 동안 공부한 것을 모두 그때가 쇠앗아 가는 구려.”

하고 또,

“노승은 오날 三百 근의 짐을 모두 내리놓고 그때에게 대신 짊어지우오. 그리하여 나는 이제 다리를 털고 잘 수 있게 되었오.”

하였다.

스승도 하듯발을 머무르셨다.

석유 화상은 <백요암가>의 발문을 써주면서 물었다.

“우두 화상이 사조를 만나기 전에 무엇 때문에 은갓 새들이 꿇은 입에 걸었는가?”

“부귀하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기 때문입니다.”

“사조를 만난 뒤에는 무엇 때문에 입에 꿇을 문 새들을 찾아볼 수 없었는가?”

“청빈하면 아들도 소훈히 하기 때문입니다.”

“공점 이전에도 태고가 있었던가 없었던가?”

“허공이 태고 가운데서 생겼습니다.”

석우 화상은 미소지으면서,

“불법이 동방으로 가는구나”하고 다시 가사를 주어 신을 표하고는,

“이 가사는 오늘의 것이지만 법은 영추산에서 흘러나와 지금에 이른 것이요. 지금 그것을 그대에게 전하는 것이니 그대로 잘 보호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오”

하고 또 주장자를 주면서 말하였다.

“이것은 노승이 평생 가지던 것으로서 오늘 그대에게 주는 것이니, 그대는 이것을 가지고 길잡이를 삼으시오.”

스승은 절하고 받은 뒤에,

“지금은 그러하거나와 구경에는 어찌하리까?”고 물었다.

석우 화상은,

“그대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천년을 가도 만나기 어려운 것이요. 만일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그에게 전해 주시오. 다만 지금까지의 불조의 명맥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오.” 하였다.

스승은 절하고 하직한 뒤에도 뜻있어 하는 빛이 있었다. 석우 화상은 수십 걸음 밖에까지 따라나와 다시 스승을 불렀다.

“장르여, 우리 절에는 본래 이별이란 것이 없으니 이별이라 생각하지 마시오. 만일 이별이 아니니 하고 생각하면 옳지 못하오. 부디 노력하시오.”

스승은 예예하고 물러나왔다.

八월 三일에 호주를 떠나 十月 十六일에 연도에 닿으니, 정신은 대방에 놓고 이들은 중원에 퍼졌다. 이때에 영녕사 장로 여철강과 공덕주 원사 광묵적립은 스승을 본사에 거처하도록 하고, 남쪽 양성의 여덕 절 장로들은 여러 곳에 글을 올려 두루 알렸으며, 우송상 동아적과 선경원사 활활사관을 천자에게 아뢰었다. (澗湖法師 法界國 偈頌, 普照釋師法語 圓頓成佛論)

계승 :

법성이 서로 융통하여 두 가지 상이 없으니,

모두 법이 움직이지 않고 부패 교요하도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일체가 끊어졌나니,

증득한 지혜의 알 바요 다른 사람의 경지가 아니다.

참 성품은 매우 깊고 극히 미묘하여

계 성품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 이루나니,

하나 속에 모든 것 있고, 여럿 속에 하나가 있으며,

하나가 곧 모든 것이요, 여럿이 곧 하나로다.

22)…東岳語文論集 第十七輯

하나의 티끌 속에 지방 세계를 머금었으니,

일체의 티끌 속도 그와 같도다.

한량 없는 오랜 길이 한 생각이요,

한 생각이 곧 한량 없는 것이다.<sup>5)</sup>

菽湘法師 法界圓融頌曰

法性圓融無二相，諸法不動本來寂 無名無相絕一切。

證智所知非簡境 眞性甚深極微妙，不守自性隨緣成。

一中一切多中一，一即一切多即一，寂塵中含十方。

一切塵中亦如是，無量遠劫即一念，念即是無量劫。

이偈에서 보면 <法性圓融二相>이라는 것은 “意識의 統一 속에 과거와 현재는 혼합된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만일 다르다면 ‘形相’과 ‘時間’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이 두 가지가 다 可視의 세계가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마침내 未尾에 와서 ‘無量遠劫即一念 一念是是無量劫’에 이르러서는 직관시간을 말하는 최고표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Bergson의 말을 빌린다면 ‘純粹持續’(durée pure)의 시간이 되겠으나, 어찌면 이 ‘순수지속’의 편이 알맹이가 빈 것을 意識하게 되는 듯도 하다.

멋진 사람

海眼禪師

고요한 달밤에 거문고란 안고 오는 벗이나,

단소를 손에 쥐고 오는 친구가 있다면,

구태여 출을 끌라 곡조를 아니 들어도 좋다.

맑은 새벽에 외로이 앉아 향(香)을 사르고,

산창(山窓)으로 스덕드는 순바람을 듣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불경을 아니 외워도 좋다.

봄다 가는 날 떨어지는 꽃을 조곤하고,

귀속도 울음을 귀에 담은 사람이라면,

구태여 시를 쓰는 시인이 아니라도 좋다.

5) 同和出版社刊, 韓國의 思想大典集 2, 知淵 慧蓮覺訓, p. 105.

아침 일찍 세수한 물로 화분을 적시며,  
 낮초 잎에 손질을 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도 좋다.  
 구름을 찾아가다가 바람을 빼제하고  
 바위에서 한가히 잠든 스님을 보거든,  
 아예 도(道)라는 속된 말을 묻지 않아도 좋다.  
 野店斜陽에 길 가다 술을 사는 사람을 만나거든,  
 어디로 가는 나그네인가 다정히 인사하고,  
 아예 가고 오는 세상 시름일랑 묻지 않아도 좋다.

—佛敎傳燈會 發行 海眼集에서—

### III. 結 論

案전대 時間의 種類는 物理的 時間(自然時間)과 歷史的 時間과 직관시간(心理的 時間)으로 大別된다고 생각한다. 勿論 여기에서 Sdnrund Husserl, (1859~1938)의 현상학적 시간등이 등장할 수 있겠으나, 過去志向이 未來志向으로 바뀔 「企投」(Entwurf)나 순수현상의 현재 속에 과거나 미래가 통일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는 地平으로 해서는 精神世界的 깊이중 직관시간만큼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細分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또 하나 「거룩한 時間과 속된 時間」, 「男性的 時間과 女性的 時間」으로 分類한 점이 있으나 속된 시간<sup>6)</sup>이란 상식적·과학적 합리성에서 출발한 실제적 時間이요, 거룩한 時間이란 현재를 永遠化하는 것이어서 후자를 心理的 時間의 一端이라고 보아 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男性的 時間을 단절적·합리적인 것으로 女性的 時間을 지속적·內在化的인 것으로 보아 그리이스의 思惟와 알리안의 思惟(게르만)로 구별하고 있으나 애당초 下位次로의 분류이리다.

前言(本論)에서 物理的 時間이 들어있는 詩와 역사적 시간이 들어있는 詩와 직관적 시간이 들어있는 시를 구체적으로 擧例·說明하였다. 마침내

6) 蘇光熙著 시간과 인간의 존재』(1980, 文眞社刊)

이러한 功程들은 어디에 結論되어 올 것인가?

物理的 時間이 들어 있는 詩들은 모두 technician의 詩이다. 따라서 이 詩들에게서는 깊이를 추구하기가 어렵을 것이다. 그리고 이 詩의 特長이라면 흥미를 진진하게는 하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提示하기에는 未甞일 수 밖에 없으니 재주에 뛰어난면 깊이를 주기가 힘들다는 것은 예술가에 있어서는 야릇한 운명이기도 하다.

不可不 서양과 동양의 차이도 드러나는 것이지만 동양사람들은 깊이에 능하고, 서양사람들은 재주에 능하니 아무래도 物理的 時間이 들어 있는 詩는 서양사람들에게 長할 것이리라.

역사적 시간이 들어 있는 詩는 『항일민족시집』이 그 본원이다. 역사적 人物이라면 우리나라의 李舜臣(1545~1598), 洪宗來(1780~1812), 全瑬準(1853~1895), 安重根(1879~1910), 申采浩(1880~1936) 이런 분들을 들 수 있겠고, 외국인이라면 Jeanne D'arc(1412~1431) 같은 분을 들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詩는 애국애족을 中心思想으로 하고 있다. 말하자면 物理的 時間이 들어있는 詩가 개인 단위의 制限을 발휘하고 있다면 역사적 시간이 그보다 한 次元 높은 국가단위의 志氣에서 詩를 보고 있는 것이다.

마침내 직관시간이 들어 있는 詩는 大道관 깨친 큰 國師나 아니면 禪師, 大師, 和尚 이런 분들의 囑頌에 많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이 높은 無時性 精神世界는 Henri Bergson의 ‘순수지속’만 가지고는 충분한 설명이 갈 수 없는 次元높은 세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직관시간이 들어 있는 詩의 세계는 萬法無, 萬法有에 이르는 것이요, 역사적 시간이 들어있는 詩世界보다 아스라히 높은 眞空妙有의 경지가 될 것이다.

이에 그러한 세계를 다소나마 설명하기 위하여 이 論考는 本論에서 ‘직관시간의 분기점’과 ‘직관시간의 근본원리’에 論及하여 보았다. 由來하여 직관시간은 「覺」의 계기가 된다고 보아지는 것이며, 「覺」을 인고 기뻐서 쓴 詩(囑頌)가 偈偈는 그 속에 직관시간이 들어 있기 마련이다.

적관시간에서 보여진 詩는 永遠·無限의 진리가 들어 愉悅이 가득차 있는 太古國師(1301~1382)의 <太古庵歌>나 <山中自樂歌>가 있으며 徐京保著 《禪賦》(1978도서출판·아카데미) 속에 허다한 偈頌들이 눈에 보이니 지면관계로 소개의 겨를을 다음으로 돌리도록 한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것은 불교문학 속의 時間이란 순수직관의 시간과 통하는 것이로되 과거와 현재를 유기적인 전체로 형성하는 의식의 통일, 또는 혼합이기보다 더 순수하고 청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末尾에 와서 하나 附言하고 싶은 바는 物理的 時間이 들어있는 시에 있어서 詩歌의 ‘모리’(洋樂의 tempo)와 관련을 맺도록 시도해 보았으나 완성을 위해서는 日後的 보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